

가속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법윤리적 책임

- 하르트무트 로자의 가속 이론의 신학적 적용*

김성수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후기 근대의 좋은 삶과 가속화
- III. 가속 사회의 공론장과 법
 - 1. 가속 사회의 구조와 특징
 - 2. 전체주의와 비동시화의 문제
 - 3. 공론장과 법의 위기
- IV. 그리스도인과 듣는 마음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1>

* 본 논문은 2025년 11월 29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The Problems of Acceleration Society and the Legal-Ethical Tasks of
Christians: A Theological Application of Hartmut Rosa's Acceleration
Theory

Professor by Special Appointment, Sungsoo Kim(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risis of the public sphere and propose alternatives based on Hartmut Rosa's acceleration theory. It also presents the legal-ethical tasks that Christians must undertake to realize these alternatives. Acceleration is a widespread phenomenon in late modern society. The public sphere is in crisis. The competitive spirit caused the other person to seem like an enemy. This made public communication difficult. Desynchronization further exacerbated the situation.

To overcome it, Ros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ctive listening. This means carefully listening to others' opinions and expressing one's own. Christians often engage in a process of listening and responding. Given this, they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opinions of others in the public sphere and thoughtfully present their own views. This leads to constructive dialogue. The result will be better laws.

Key words: Hartmut Rosa, Acceleration Society, Legal Ethics, Christian Ethics, Public Sphere, Listening

I.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체계는 시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 참여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¹⁾ 이는 공적 의사소통에 동참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그런 점에서 공론장은 참여의 권리가 구현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와 같은 높은 위상과 의미를 지닌 공론장이 최근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징후를 탈진실 현상(Post-Truth)에서 포착할 수 있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확증편향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보다 고유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이다.²⁾ 탈진실 현상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³⁾ 이 두 사안의 결정에 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수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사회 안에서 가짜뉴스를 활용하여 특정 입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 공론장은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되었다.⁴⁾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탈진실 현상의 근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공론장은 기존의 저널리즘 중심에서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 구조 변화를 통해 공적 의사소통은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전과 달리 시민 전체의 활발한 참여를 근간으로 삼게 되었다.⁵⁾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1) Jürgen Habermas, *Ein neuer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d die deliberative Politik* (Berlin: Suhrkamp, 2022), 89.

2) Lee McIntyre, *Post-Truth*, 김재경 역, 『포스트 트루스: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서울: 두리반, 2019), 19.

3) 위의 책, 16.

4)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Freiheit digital. Die Zehn Gebote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204-205.

5) Jürgen Habermas, *Ein neuer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d die deliberative*

생산, 유통되면서 공론장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특히 가짜 뉴스가 검증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규정하였다.⁶⁾ 새로운 공론장이 된 소셜미디어 안에서 책임적 중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탈진실 현상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론장은 탈진실 현상 이면에 위치한 근대적 현상에 의해 더 큰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속화이다.⁷⁾ 사회 전반에 확산된 가속화로 인해 공론장은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인간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 법⁸⁾이 더 나은 형태로 개선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독일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Hartmut Rosa)의 사회 이론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⁹⁾ 로자는 가속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로부터 공론장의 위기 극복을 실제화할 수 있는 이론적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구상은 개신교 신학에 의해

Politik, 44.

6) 위의 책, 64.

7)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Entwurf einer kritischen Theorie spätmoderner Zeitlichkeit*, 김태희 역, 『소외와 가속: 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 (서울: 엘피, 2020), 32.

8)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11.

9) 로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4세대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특히 그 2세대 학자인 하버마스와 3세대 학자이자 실제 그의 스승이기도 한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영향 속에 고유의 근대 기획을 체계화하였다. Jörg Hübner, "Reich-Gottes-Hoffnung als Auferstehungs-Resonanz. Hartmut Rosas Resonanzkonzept ins Gespräch gebracht: Ein theologisches Experiment," *EvTh* 81/3(2021), 224.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¹⁰⁾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법윤리적 노력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로자의 가속 이론을 바탕으로 공론장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을 시도하고, 그 구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법윤리적 과제를 명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로자의 가속 이론의 출발점인 후기 근대의 개념과 좋은 삶의 의미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가속 사회의 특징과 문제를 정교화한 뒤 공론장과 법의 위기 상황에 대해 논구할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공론장의 활성화를 돕는 시민의 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정착과 확산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II. 후기 근대의 좋은 삶과 가속화

로자는 인간이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¹¹⁾ 그러나 근대 사회 안에서 좋은 삶의 실현은 다양한 병리 현상을 통해 제약을 받고 있다. 병리 현상의 극복은 좋은 삶의 구현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나은 사회의 현실화를 촉진한다.¹²⁾ 로자가 주목한 좋은 삶은 좋음(das Gute)의 증진을 통해 실현되는 삶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좋음에 대한 성찰이 이뤄졌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

10) 로자의 가속 이론을 신학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Traugott Jähnichen, "Der Sonntag - Orientierungspunkt im Flickenteppich gesellschaftlicher Zeitmuster?," *Berliner theologische Zeitschrift* 37/1(2020), 216-233.

11) Hartmut Rosa, "Gelingendes Leben in der Beschleunigungsgesellschaft. Resonante Weltbeziehungen als Schlüssel zur Überwindung der Eskalationsdynamik der Moderne," in *Zu schnell für Gott? Theologische Kontroversen zu Beschleunigung und Resonanz* (Freiburg: Herder, 2017), 18.

12) Hartmut Rosa, *Resonanz. Eine Soziologie der Weltbeziehung* (Frankfurt a. M.: Suhrkamp, 2020), 762.

고 주장하였다.¹³⁾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향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식을 보다 정교화하였다. 그는 추구될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을 특히 행복으로 이해하였다.¹⁴⁾ 여기서 행복은 수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 좋음(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인식은 기독교의 발전 과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좋음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그에게 최고의 좋음, 곧,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추구되어야 할 본질적인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이 최고선을 고유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없다. 다만 인간은 이를 누릴 수 있을 뿐(frui)이다.¹⁵⁾ 이 인식의 기초 위에서 인간은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좋은 것은 최고선과 비교할 때 상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uti)으로서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⁶⁾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를 수용하여 인간의 역할을 부각하였다. 인간의 근본 과제는 최고선인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다.¹⁷⁾ 그 외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차적인 사안이다. 인간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일을 증진한다.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믿음, 소망, 사랑도

13) Wolfhart Pannenberg, *Grundlagen der Ethik. Philosophisch-theologische Perspektiv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27.

14) Christof Frey, *Wege zu einer evangelischen Ethik. Eine Grundlegun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4), 244.

15) Wolfgang Huber, "Was macht eine theologische Ethik theologisch?," in *Was ist theologische Ethik? Beiträge zu ihrem Selbstverständnis und Profi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5), 18.

16) 위의 책, 18.

17) Wolfhart Pannenberg, *Grundlagen der Ethik*, 41.

하나님으로의 방향 설정을 돕는다. 그런 점에서 덕의 함양은 최고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¹⁸⁾

근대에 들어선 뒤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좋음의 개념은 재정립되었다. 자율성의 구현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주체적 삶의 실현이 좋은 삶의 핵심으로 이해되었다.¹⁹⁾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에서 자율성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좋은 삶의 구현은 점차 어려워졌다. 이 상황을 야기한 병리 현상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사회 병리의 원인을 자연 지배(Domestizierung)에서 찾는 입장이 있다.²⁰⁾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입장은 인간이 기술 발전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고,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삶은 파괴된 자연으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그리고 합리화(Rationalisierung)를 병리 현상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²¹⁾ 막스 베버(Max Weber)가 강조한 이 입장에 따르면, 근대 사회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과 검증이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고, 효율성을 중시하였다. 그에 반해 계산적이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영역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근대 사회는 종교 등의 영역이 제공했던 의미 자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분화(Differenzierung)를 부각하는 입장이 존재한다.²²⁾ 니클라스

18) Wolfgang Huber, "Was macht eine theologische Ethik theologisch?," 19.

19)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72.

20) Hartmut Rosa, David Strecker, *Soziologische Theorien*, 최영돈, 이남복, 이종희, 이철, 전태국 역, 『사회학 이론: 시대와 관점으로 본 근현대 이야기』(과주: 한울아카데미, 2016), 26.

21) 위의 책, 26-27.

22) 위의 책, 27-28.

루만(Niklas Luhmann)으로 대표되는 이 입장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산업화의 촉진을 통해 사회가 분업 과정을 거치며, 각 영역이 고유 법칙과 논리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근대 사회의 체계는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전체성의 약화와 구심점의 부재를 겪게 되었다.

이외에도 개인화(Individualisierung)에서 사회 병리의 원인을 찾는 입장도 있다.²³⁾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이 체계화한 이 입장은 근대 사회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직업, 종교,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앞서 설명한 사회의 분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가 분화하면서 기존의 과학, 문학, 음악, 기술, 법 등이 고유 법칙에 따라 급격한 발전을 이뤘는데, 개인은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한 대중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만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문화를 습득할 뿐 고유의 주관적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확산되었다.²⁴⁾ 이는 선택과 결정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주체적 삶을 구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로자는 이 입장들과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고유의 근대 기획을 구조화하였다.²⁵⁾ 이를 위해 먼저 그는 근대를 세 시기로 세분화하였다. 초기 근대(frühe Moderne)²⁶⁾는 19세기 후반 산업화를 통해 본격화되었는데,

23) 위의 책, 133-136.

24) Georg Simmel, *Kulturtheorie*, 김덕영, 배정희 역, 『문화이론』 (서울: 길, 2007), 179.

25) 로자는 이 입장들 속에서 자신의 사회 이론의 맹아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급격한 사회 발전이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 짐멜의 이해를 가속 이론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Hartmut Rosa, David Strecker, *Soziologische Theorien*, 134.

이때 종교와 관습에 기초한 기존 전통과 제도가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노동 시간의 증가로 기존의 단조로운 생활 유형이 변화하였다. 이 변화에 따라 개인은 생활양식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선거권의 확대로 정치 영역의 변동이 심화되면서 국가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전된 근대(entwickelte Moderne)²⁷⁾는 20세기 중반 국가 질서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이 이뤄졌고, 이 토대 위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증진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이 안정화되고, 삶의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로자가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은 후기 근대(Spätmoderne)²⁸⁾는 냉전 종식 이후 국가 질서가 다시금 불안정해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때 지구화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초국가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이는 국가 질서의 약화를 심화하였다. 사회 보장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고용도 불안정해졌다. 개인 삶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체적 삶의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 현상은 가속화를 통해 공고화되었다. 사회 영역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좋은 삶의 가능성도 더욱 줄어든 것이다.²⁹⁾ 가속화는 공론장의 위기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로자는 가속화를 사회 병리의 요체로 이해하였다. 그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6) 위의 책, 29-31.

27) 위의 책, 31-32.

28) 위의 책, 33-34.

29) 가속화를 근대 사회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로자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짐멜 외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사회적 가속이 야기하는 부정적 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로자는 이들의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가속화를 근대 기획의 중핵으로 삼고, 그 병리 현상을 추적하였다.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17.

III. 가속 사회의 공론장과 법

1. 가속 사회의 구조와 특징

로자는 가속화가 두드러진 후기 근대를 가속 사회(Beschleunigungs-gesellschaft)로 규정하였다.³⁰⁾ 가속화는 기술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결과 산출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교통, 통신, 생산과 관련된 시간의 단축을 가져왔다.³¹⁾ 이를 통해 사회 변화가 촉진되었다. 특히 정치, 문화, 경제, 가치, 언어 등이 빠르게 변화하였다.³²⁾ 이로 인해 현재의 일상적인 것들은 빠르게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새로운 것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현재라는 시간 양태의 위상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수축(Gegenwartsschrumpfung) 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사회 제도와 구조 역시 안정성을 지니기 어려워졌다.³³⁾ 이처럼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 속도도 함께 빨라졌다.³⁴⁾

로자는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이 이뤄지는 현상을 사회적 가속(soziale Beschleunigung)으로 정식화하였다. 사회적 가속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추동된다. 자본주의 체계를 견인하는 경쟁 원리는 그중 하나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재화, 자원, 지위의 획득은 개인이 속한 집단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소속 집단이 소유한 것을 개인이 자연스럽게 이양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반해 근대 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한 분배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³⁵⁾ 이에 따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인 성과가 중요한 것으로

30) 위의 책, 32.

31) 위의 책, 20.

32) 위의 책, 22.

33) 위의 책, 23.

34) 위의 책, 32.

이해된다. 사회적 가속은 성과의 산출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였다. 특히 기술 가속의 영향으로 자유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그 시간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보다 많은 성과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일이 증가한 것이다.³⁶⁾ 이것은 경쟁자를 감안한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경쟁자도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속 사회에서 경쟁력 유지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 증진을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선택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패배하고, 도태되기 때문이다.³⁷⁾ 그런 점에서 성장 추구는 현상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 역동적 안정화(dynamische Stabilisierung) 현상은 경쟁 원리에 토대를 둔 가속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³⁸⁾

로자는 가속화를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현세에 대한 관심을 꼽았다. 근대 사회의 형성 이후 종교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었다. 그 대신 현세에서의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³⁹⁾ 이에 따라 유한한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애석하게도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다 경험하기에는 한 번의 생이 너무

35) 위의 책, 36.

36) 위의 책, 28.

37) Hartmut Rosa, *Demokratie braucht Religion*, 유영미 역, 『공명 사회: 위기의 민주주의 경청에서 답을 찾다』 (서울: 니케북스, 2025), 39.

38) 위의 책, 26.

39)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39.

짧다. 세상이 제공하는 선택 사항들은 한 개인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훌쩍 뛰어넘는다... 따라서 생활속도의 가속은 이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법이다. 우리가 '2배로 빨리' 산다면, 어떤 행동, 목표, 경험을 실현하는 데 드는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면, 경험의 '총합'은 2배가 되고 따라서 우리 생애 중에 '삶의' 총합도 2배가 된다. 우리의 몫 혹은 '효력', 즉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택 사항에 대하여 실현된 선택 사항의 비율이 2배가 되는 것이다."⁴⁰⁾

기술 발전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토대 위에서 사회적 가속이 활성화되었다.⁴¹⁾ 이처럼 현세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반을 빠르게 만들었다.

2. 전체주의와 비동시화의 문제

로자는 가속화 현상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⁴²⁾ 먼저 이것은 전체주의 권력이 되어 주체적 삶을 제약한다. 전체주의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추상적인 원리도 독재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통치받는 대상 모두를 예속시키는 원리에 해당한다.⁴³⁾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막강하여 개인이 그로부터 벗어나거나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다.⁴⁴⁾ 사회적 가속은 이러한 전체주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40) 위의 책, 40.

41) 위의 책, 40.

42) 로자는 후술할 두 가지 요소들 외에 소외를 근대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지적하였다. 소외의 극복은 공명(Resonanz)의 증진을 통해 가능하다. 공명의 개념과 층위에 관한 로자의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Hartmut Rosa, *Resonanz; Unverfügbarkeit* (Frankfurt a. M.: Suhrkamp, 2020).

43)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86.

44) 위의 책, 87.

“...사회적 삶의 어떤 영역도 속도의 독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변형되지 않기는 어렵다. 사회적 가속이 진행되면 우리의 시공간 체제 자체가 변형되므로, 사회적 가속은 모든 것에 침투하고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주입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한다. 투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이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즉 우리가 직면한 (끝없이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휴식을 취하면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실업자나 병자에게는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미 뒤처져 있다는 두려움이다.”⁴⁵⁾

사회적 가속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개인의 저항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주체적 삶의 구현이 어려워졌다. 특히 사회적 가속에 의해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휴식을 최소화하며, 업무와 자기 계발에 진력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번아웃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⁴⁶⁾ 이처럼 주체적 삶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좋은 삶의 실현이 어려워졌다.

비동시화(Desynchronisierung)는 가속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이다. 가속화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도 속도 제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 영역은 고유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변화의 속도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가속화된 현실과 가속화되지 않은 영역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⁴⁷⁾ 이때 사회 변화의 속도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이 영역이 고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론장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45) 위의 책, 87-88.

46) Hartmut Rosa, “Gelingendes Leben in der Beschleunigungsgesellschaft,” 31-32.

47)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97.

3. 공론장과 법의 위기

로자는 앞서 설명한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체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민은 공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⁴⁸⁾ 그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자는 민주주의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였다.⁴⁹⁾ 모든 목소리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전체를 형성하듯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공적 의사소통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시민은 공론장에 참여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고유 견해를 표출해야 한다.

로자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공론장이 가속화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것은 그 동력인 경쟁 원리에 의한 것이다. 경쟁 원리가 심화된 사회에서 타자는 적으로 간주된다.⁵⁰⁾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이 첨예화되면서 타자와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심화되면서 성숙한 논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합의 도출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상황은 앞서 설명한 비동시화 현상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공론장에서의 의사결정은 대화, 설득,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⁵¹⁾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후기 근대에서 의사결정은 더욱 쉽지 않은 사안이 되었다. 개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방향이 탈전통화, 탈관습화, 다원화되면서 윤리적 기준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⁵²⁾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공론장은 가속화된 현실과 속도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⁵³⁾

48) Hartmut Rosa, *Resonanz*, 366.

49) 위의 책, 366.

50) Hartmut Rosa, *Demokratie braucht Religion*, 44-45.

51)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100.

52) 위의 책, 100.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태도의 가속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속도를 공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표면화된 것이다.⁵⁴⁾ 사회 변화의 속도와 비교하여 공론장의 속도가 느리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빠르게 각인될 수 있는 형태의 정치 행위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보복과 같은 감정에 기초한 정치 행위, 특정 노선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정치 행위가 지지를 얻는 현상이 발생하였다.⁵⁵⁾ 여기서 더 나아가 여론을 활용한 선동이 심화되기도 하였다.⁵⁶⁾ 탈진실 현상의 확산도 이 배경 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비동시화 현상은 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론장의 위기는 법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 질서는 주로 관습법, 자연법에 근거하여 발전하였다.⁵⁷⁾ 이 토대 위에서 그에 대한 준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법 질서는 안정적으로 존속되었다. 근대 사회가 되어 자본주의 체계가 발전하면서 이윤 창출의 증진을 위해 혁신(Innovation)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는데, 이 가치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⁵⁸⁾ 학문 영역도 변화의 요구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 영역 역시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법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법은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역동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었다.⁵⁹⁾ 법의

53) Hartmut Rosa, "The Speed of Global Flows and the Pace of Democratic Politics," *New Political Science* 27/4(2005), 455-456.

54) Hartmut Rosa, *Beschleunigung. Die Veränderung der Zeitstrukturen in der Moderne* (Frankfurt a. M.: Suhrkamp, 2016), 403.

55) Hartmut Rosa,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77.

56) 위의 책, 78.

57) Hartmut Rosa, "Gelingendes Leben in der Beschleunigungsgesellschaft," 26.

58) Hartmut Rosa, *Beschleunigung*, 407.

59) Hartmut Rosa, "Gelingendes Leben in der Beschleunigungsgesellschaft," 26.

개선 과정은 공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나은 법을 위한 의견을 공론장에서 표출하고, 그에 대한 설득과 합의를 거친 뒤 입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인식이 비동시화 현상을 통해 강화됨으로써 법의 개선을 위한 성숙한 논의의 구현이 어려워지고 있다.

IV. 그리스도인과 듣는 마음

성숙한 의사소통은 더 나은 법의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로자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민의 덕을 제안하였다.⁶⁰⁾ 그의 모색은 베버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베버는 학문(Wissenschaft)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학문은 자연과학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영역을 기술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것을 요체로 삼고 있다.⁶¹⁾ 논리와 사실을 주제화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삶의 영역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그 탐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⁶²⁾ 이러한 측면에서 학문은 가치 중립성(Wertfreiheit)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⁶³⁾ 지적인 공정성(intellektuelle Rechtschaffenheit)의 틀 안에서 논리와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정교화하는 것을 중시한다.⁶⁴⁾

60) 로자는 그 학문적 계보를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주제화하였다. 주로 사회윤리적 기획을 전개하였지만, 덕론을 중심으로 한 윤리 이론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덕윤리에 관한 그의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Hartmut Rosa, "Die ethische Haltung bedeutet für mich hören und antworten," *Freiburger Zeitschrift für Geschlechterstudien* 24(2018), 99-101.

61)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1951), 583.

62) 위의 책, 583.

63) 가치 중립성에 관한 베버의 이해는 다음을 참고하라. Max Weber, "Der Sinn der Wertfreiheit der soziologischen und ökonomischen Wissenschaften,"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1951), 475-526.

학문은 가치와 분리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베버의 주장은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고, 그 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⁶⁵⁾ 이 가치들의 위계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⁶⁶⁾ 그래서 학문은 이 가치들을 존중할 뿐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로자는 베버의 구상 속에서 성숙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덕의 실마리를 포착하였다. 다양한 가치들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처럼 다채로운 의견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로자는 이를 기초로 타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주목한 덕은 듣는 마음(hörendes Herz)이다.⁶⁷⁾ 듣는 마음은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을 지양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타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덕의 증진을 통해 타자가 말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⁶⁸⁾ 그러나 이 덕은 단순히 듣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저는 늘 민주주의는 각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만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하다는 확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듣는 귀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듣는 귀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⁶⁹⁾

64)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585.

65) 위의 책, 587.

66) 위의 책, 592.

67) Hartmut Rosa, *Demokratie braucht Religion*, 59.

68) 위의 책, 64.

69) 위의 책, 59.

로자는 듣기와 응답하기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⁷⁰⁾ 그런 점에서 의견 경청은 의견 제시로 이어진다. 로자는 이 듣는 마음의 기본 구조가 공론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론장에서 의견 경청과 의견 개진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 개선을 위한 성숙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더 나은 법의 형성을 위해 듣는 마음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듣는 마음의 함양은 시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⁷¹⁾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짐멜은 근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특정 영역의 지식이 전문화됨으로써 그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⁷²⁾ 법은 그 대표적인 영역이다. 시민은 법에 관한 전문 지식에 쉽게 도달할 수 없고, 법률가만이 그것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법에 대한 성찰과 접근도 법률가만의 과제라는 이해가 자리 잡았다.

본래 정치도 직업 정치인만의 과제로 이해되었다. 직업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베버가 1919년 발표한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⁷³⁾ 그러나 정치에 대한 책임은

70) 듣기와 응답하기는 로자의 사회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는 특히 공명 현상이 듣기를 포함하는 접촉(Berührung)과 응답하기의 과정에서 현실화된다는 그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rtmut Rosa, *Unverfügbarkeit*, 38-41.

71) 민주주의 체계를 증진하는 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다양한 층위와 맥락에서 시도된 바 있다. 그에 관한 신학적 접근은 다음을 참고하라. Wolfgang Huber, “Krise der Demokratie. Brauchen wir eine neue politische Ethik?,” *ZEE* 63(2019), 163-167;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Deutsche Bischofskonferenz, *Demokratie braucht Tugend* (Hannover/Bonn: EKD/DBK, 2006);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Konsens und Konflikt. Politik braucht Auseinandersetzung* (Hannover: EKD, 2017), 20-21, 24-25.

72) Georg Simmel, *Kulturtheorie*, 179.

73) Max Weber, “Politik als Beruf,” in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Tübingen: Mohr Siebeck, 1958), 493-548.

직업 정치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계는 시민의 참여를 토대로 기능하는데, 이것은 모든 시민이 정치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⁷⁴⁾ 독일 신학자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이 생각을 확장하여 정치뿐만 아니라 법도 모든 시민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법률가만 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법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시민은 정치적, 경제적 시민일 뿐만 아니라 법 시민(Rechtsbürger)이기도 한 것이다.⁷⁵⁾ 그런 점에서 법윤리적 성찰과 공론장 참여는 시민의 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속 사회의 공론장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듣는 마음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듣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덕이다.⁷⁶⁾ 개신교 신앙은 듣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롬 10:17)를 통해 생성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⁷⁷⁾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틴 루터는 듣기를 가능하게 하는 성서와 설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⁷⁸⁾ 듣기를 통해 생성되고, 강화된 신앙은 기도와 신앙고백을 통해 구체화된다.⁷⁹⁾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해당한다. 응답의 행위는 윤리적 노력

74)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vangelische Kirche und freiheitliche Demokratie. Der Staat des Grundgesetzes als Angebot und Aufg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5), 23.

75) Wolfgang Huber, "Rechts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5), 141.

76) 로지는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일화 속 그것과 점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Hartmut Rosa, *Demokratie braucht Religion*, 59.

77) Traugott Jähnichen, *Evangelischer Glaube in der pluralen Religionskultur der Moderne. Fundamentaltheologische Perspektiven* (Stuttgart: Kohlhammer, 2023), 138.

78) 위의 책, 98.

79) 위의 책, 139.

을 통해 구현되기도 한다. 이웃을 위한 책임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⁸⁰⁾

그리스도인은 신앙 생활을 통해 듣기를 반복한다.⁸¹⁾ 이 토대 위에서 응답하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듣기와 응답하기의 종합적 구현에 익숙하다. 그리스도인은 이 역량을 공론장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존중의 태도로 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준거들로 삼아 좋은 삶을 증진할 수 있는 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의견 경청과 의견 개진은 공론장 안에 듣는 마음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성숙한 의사소통의 증진과 그로 인한 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V. 나가는 말

최근 공론장은 탈진실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론장은 그 이면에 위치한 가속화 현상을 통해 더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를 주제화한 로자는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인 좋은 삶의 실현 가능성이 후기 근대의 특징적 현상인 사회적 가속으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가속은 경쟁 원리와 현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심화되었다. 이는 전체주의적 원리가 되어 인간의 자율성을 위협하였고, 비동시화 현상을 촉진하여 사회 변화와의 속도 차이를 통해 특정 영역이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양산하였다.

80) Wolfgang Huber, *Glaubensfragen.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München: C. H. Beck, 2017), 88.

81) 로자는 이외에도 교회의 음악, 몸짓, 공간, 전통, 실천 등을 통해 듣기의 경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artmut Rosa, *Demokratie braucht Religion*, 88.

가속화는 공론장의 위기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추동 요소인 경쟁 원리는 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심리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현상은 비동시화 현상을 통해 공고화되었다. 사회 변화의 속도에 비해 공적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느리다고 이해되면서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적 대화에 토대를 둔 법 개선의 과정도 난항을 겪게 되었다.

로자는 성숙한 의사소통의 현실화를 위해 듣는 마음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을 지양하고, 존중의 태도로 타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의견 제시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인은 듣기와 응답하기의 기본 구조 속에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공론장에 참여하여 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복음의 구체화를 통해 좋은 삶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⁸²⁾ 이러한 노력은 듣는 마음의 정착과 확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더 나은 법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82) 그리스도인의 공론장 참여는 특히 후버, 트라우고트 예니헨(Traugott Jähnichen)에 의해 깊이 주제화된 바 있다. 그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볼프강 후버의 세계시민윤리,” 『기독교철학』 42(2025), 65-89; “기독교의 공공성과 교회의 연대성 - 트라우고트 예니헨의 윤리 이론의 토대,” 『기독교철학』 43(2025), 157-180.

참고문헌

- 김성수. “볼프강 후버의 세계시민윤리.” 『기독교철학』 42(2025), 65-89.
- _____. “기독교의 공공성과 교회의 연대성 - 트라우고트 예니헨의 윤리 이론의 토대.” 『기독교철학』 43(2025), 157-180.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vangelische Kirche und freiheitliche Demokratie. Der Staat des Grundgesetzes als Angebot und Aufg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5.
- _____. Deutsche Bischofskonferenz. *Demokratie braucht Tugend*. Hannover/Bonn: EKD/DBK, 2006.
- _____. *Konsens und Konflikt. Politik braucht Auseinandersetzung*. Hannover: EKD, 2017.
- _____. *Freiheit digital. Die Zehn Gebote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 Frey, Christofer. *Wege zu einer evangelischen Ethik. Eine Grundlegun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4.
- Habermas, Jürgen. *Ein neuer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d die deliberative Politik*. Berlin: Suhrkamp, 2022.
-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_____. “Was macht eine theologische Ethik theologisch?.” In *Was ist theologische Ethik? Beiträge zu ihrem Selbstverständnis und Profi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5, 13-28.
- _____. “Rechts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5, 125-193.
- _____. *Glaubensfragen.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München: C. H. Beck, 2017.
- _____. “Krise der Demokratie. Brauchen wir eine neue politische Ethik?.”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63(2019), 163-167.
- Hübner, Jörg. “Reich-Gottes-Hoffnung als Auferstehungs-Resonanz. Hartmut

Rosas Resonanzkonzept ins Gespräch gebracht: Ein theologisches Experiment.” *Evangelische Theologie* 81/3(2021), 223-236.

Jähnichen, Traugott, “Der Sonntag - Orientierungspunkt im Flickenteppich gesellschaftlicher Zeitmuster?.” *Berliner theologische Zeitschrift* 37/1(2020), 216-233.

_____. *Evangelischer Glaube in der pluralen Religionskultur der Moderne. Fundamentaltheologische Perspektiven.* Stuttgart: Kohlhammer, 2023.

McIntyre, Lee. *Post-Truth.* 김재경 역. 『포스트 트루스: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서울: 두리반, 2019.

Pannenberg, Wolfhart. *Grundlagen der Ethik. Philosophisch-theologische Perspektiv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Rosa, Hartmut, “The Speed of Global Flows and the Pace of Democratic Politics.” *New Political Science* 27/4(2005), 445-459.

_____. *Beschleunigung. Die Veränderung der Zeitstrukturen in der Moderne.* Frankfurt a. M.: Suhrkamp, 2016.

_____. Strecker, David. *Soziologische Theorien.* 최영돈, 이남복, 이종희, 이철, 전태국 역. 『사회학 이론: 시대와 관점으로 본 근현대 이야기』. 과주: 한울아카데미, 2016.

_____. “Gelingendes Leben in der Beschleunigungsgesellschaft. Resonante Weltbeziehungen als Schlüssel zur Überwindung der Eskalationsdynamik der Moderne.” In *Zu schnell für Gott? Theologische Kontroversen zu Beschleunigung und Resonanz.* Freiburg: Herder, 2017, 18-51.

_____. “Die ethische Haltung bedeutet für mich hören und antworten.” *Freiburger Zeitschrift für Geschlechterstudien* 24(2018), 91-109.

_____. *Resonanz. Eine Soziologie der Weltbeziehung.* Frankfurt a. M.: Suhrkamp, 2020.

_____. *Unverfügbarkeit.* Frankfurt a. M.: Suhrkamp, 2020.

_____. *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 Entwurf einer kritischen Theorie spätmoderner Zeitlichkeit.* 김태희 역. 『소외와 가속: 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 서울: 엘피, 2020.

_____. *Demokratie braucht Religion.* 유명미 역. 『공명 사회: 위기의 민주주의의 경청에서 답을 찾다』. 서울: 니케북스, 2025.

Simmel, Georg. *Kulturtheorie*. 김덕영, 배정희 역. 『문화이론』. 서울: 길, 2007.

Weber, Max. "Der Sinn der Wertfreiheit der soziologischen und ökonomischen Wissenschaften."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1951, 475-526.

_____. "Wissenschaft als Beruf."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1951, 566-597.

_____. "Politik als Beruf." In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Tübingen: Mohr Siebeck, 1958, 493-548.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07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하르트무트 로자의 가속 이론을 토대로 공론장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을 시도하고, 그 현실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법윤리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속화가 일반화된 후기 근대 사회에서 공론장은 위기를 겪고 있다. 가속화를 추동하는 경쟁 원리의 심화를 통해 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공적 대화가 어려워졌다.

비동시화 현상을 통해 더욱 악화된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 로자는 듣는 마음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유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듣기와 응답하기의 기본 구조 속에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태도이다. 이 경험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의견 경청과 의견 개진은 듣는 마음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성숙한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더 나은 법의 형성에 공헌할 것이다.

주제어: 하르트무트 로자, 가속 사회, 법윤리, 기독교윤리, 공론장, 경청
